

군산에 1호 AI 데이터센터 들어선다

군산시, SGC에이아이인프라와 투자 협약… 국가2산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8720억 투자·10월 착공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주)SGC에이아이인프라와 총 872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재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 박준영·이우성 (주)SGC에너지 대표 이사가 참석했다.
(주)SGC에너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해 지분 100%를 전액 출자한 자회사 (주)SGC에이아이인프라를 신설했다. 아울러 군산 SGC그린파워 부지에 KT,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본격적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는 군산 국가2산업단지 내 약 3만 5,000평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60메가와트(MW) 규모의 모듈형 데이터센터로 10월에 착공해 오는 2028년 1분기 운영을 개시하고, 2단계 사업을 통해 총 300MW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해당 부지는 AI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자가 발전소를 통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이러한 강점으로 안정적 전력 확보와 발열 문제 해결을 통한 최적의 PUE(Power Usage

Effectiveness·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 평가 지표) 구현 등 AI 데이터센터의 운영 경제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SGC에너지의 사업 운영 방식은 집단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이용해, 기업에 최적의 AI 데이터센터를 제공하는 ‘파워드 셸(Powered Shell)’이다. 즉, 개발사는 데이터센터 건물과 전력·냉각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입주사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IT 장비를 직접 조달한다. 이를 통해 SGC에너지는 GPU 교체 주기에 따른 대규모 재투자 위험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장기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주)SGC에너지의 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프로젝트는 지역 건설사 및 토목·설비 업체의 참여와 자재 공급망 활성화 등으로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확보를 통해 군산시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SGC에이아이인프라의 AI데이터센터가 지난달 투자협약을 맺은 드림라인의 초고속 해저통신망인 육양국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투자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25일 전주한옥마을 하안양옥집에서 제6회 기록물 전시회를 연 가운데, 고경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정종복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등이 설명을 듣고 있다.

기록으로 만나는 ‘전북의 축제와 마을’

제6회 기록물 전시회 개최… 한옥마을 하안양옥집 · 도청 로비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하안양옥집에서 제6회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북 각 지역의 축제와 마을공동체, 도민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기록을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전주한옥마을 하안양옥집에서 진행되며, 10월 6일부터 23일까지는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고경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정종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경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등이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하고 기록물 수집공모전 입상자들을 시상했다.
먼저 지역축제 기록으로는 제1회 고창 모양상제와 제46회 춘향제 포스터

를 비롯해 순창 장류축제의 전신인 제1회 고추장 아가씨 선발대회 계획 문서, 전주 풍납제와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공연 사진 등이 전시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만들어지고 이어져 온 모습을 다양한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전통과 생활상을 담은 기록도 만날 수 있다. 진안 원강정마을 당산제 놀기, 정음 원정마을 줄다리기 당산굿 문서, 남원 천년송 산신제 자료, 무주 산의살마을 솟대제 사진 등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이어져 온 공동체 문화를 소개한다.
도민의 일상과 전북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록물도 함께 선보인다. 남원 이곡마을 계모임 회의록과 미군정기 한문교과서인 ‘신원중등한문독본’, 조선시대 호구단자를 비롯해 옛 전북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책자 등 다양한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촌 카페·빵집’ 문 연다

전북도,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산물 활용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타운홀미팅 현장 건의제도개선 반영…농업인 소득원다양화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카페·빵집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체험·판매와 연계해 농업의 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 전북자치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이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은 개인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어업법인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하는 휴게음식점은 본인이 경

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이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체험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인근에 실제 경영하는 농지 등이 위치해야 한다.
판매하는 음식과 음료도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조리·제조한 제품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원료 활용한 제품은 부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시설은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이어야 하며, 비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카페·빵집 등과 연계해 판매하거나 체험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원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5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농업인의 애로사항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게음식점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설치 주체와 체험시설, 입지, 시설 규모, 농지전용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 최근 5년 차량화재… 8월 최다 발생

여름철 379건 발생, 기계·전기적 요인 62% 차지…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최근 5년간 여름철 차량화재를 분석한 결과,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8월에 차량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모두 1,311건이다. 이 가운데 6~8월에 379건이 발생해 전체의 28.9%를 차지했다. 차량화재 10건 가운데 3건 가까이가 여름철에 발생한 셈이다.
월별로는 6월 119건, 7월 124건, 8월 136건으로 8월이 가장 많았다.
8월 차량화재는 여름철 전체의

35.9%를 차지했으며, 6월보다 17건(14.3%), 7월보다 12건(9.7%) 많았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8월 24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차량화재 20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6~8월에는 79건이 발생했으며, 월별로는 6월 32건, 7월 24건, 8월 2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여름철 차량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계적 요인이 146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89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두 요인을 합하면 235건으로 전체 여름철 차량화재의 62%를 차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관광·레저산업 일자리 경쟁력 강화

‘전북지역 관광·레저 산업올림 포럼’ 사회적 대화 협의체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주 데메이 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전북자치도 및 시군 관광·레저산업 관계기관, 일자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관광·레저 산업올림 포럼 및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수요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의 일자리와 인력수요를 진단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인력 확보와 교육훈련, 고용유지 등의 어려움을 공유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관광·레저산업인력자원개발위원회와 전북지역인력자원개

발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레저산업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작무역량 강화 △교육훈련과 취업 연계 △근무환경 개선 등 관광산업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을 검토해 현재 추진 중인 관광산업 일자리 사업을 보완하고, 2027년 지역 일자리 사업과 관광산업 인력양성 정책 발굴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관리 나선다

한과·떡류·제사음식 등 제조·판매업체 대상 5일간 집중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한과와 떡류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14개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8개 반 3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총 30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한과·떡류·두부류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33개소 △전·잡채 등 제사음식 조리·판매업체 252개소 △건장기능식품 판매업소 18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 제조·판매 여부 △소비가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원료 및 완제품 보관·유통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시설 위생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 공고 제2026-206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 열람공고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사항: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2. 열람기간: 2026. 8. 26. ~ 9. 9. (14일)
3. 열람장소: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Tel. 063-454-3503)
4. 입안초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페이지	29	공원	소공원	옥구읍 선재리 98-14 일원	844	감)844	-	군산시 고시 제2018-10호 (2018.1.12.)	

5.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 실용생략 (열람장소비치)
6.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6일 군 산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3-9700 www.jmaeil.com